성실 • 경건 • 신념

"대진중원 세계로, 세계는 대한민국으로"

中源大學報

The Jungwon University Times

제11호 2016년 7월 25일(월)/계간

발행인 · 안병환 | 발행처 · 중원대학교 홍보실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2면 Campus News
개교 7주년 맞아 깜짝 간식 나눔 이벤트 열어
안병환 총장, 총학생회와 설렁탕 먹으며 소통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식 개선 체험' 행사 가져
3면 Campus News
직장예비군대대 창설식 개최!
중국 소흥문리대학 학술 교류단 방문
4면 Campus News
항공 승무원의 꿈을 열다!
2016년도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산업디자인학과, 벽화그리기 재능기부 활동 펼쳐
5면 Students News
세계대학양궁선수권대회 단체 우승!
Candy's
6면 Students News
생약자원개발학과 전공연계 봉사활동 가져
총학생회 독특한 성년의 날 행사 열어 눈길!
마음이 따뜻해지는 따가움!
7면 Students News
유네스코 볼런티어 Do it
8면 Students News
2016년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마치고...
9면 안병환 총장 특집 인터뷰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도약을 꿈꾸며
10면 JWU in 人
중원의 숨은 일꾼을 찾아라!
11면 JWU in 人
최재영 교수 연구개발사업
'X-Project' 선정
고시원에서 용 난다
12면 · 14면 JWU in life
다큐3일
15면 JWU in life
미슐랭 중원의 별
16면 JWU in life
패완얼 :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17면 Special
알찬 방학을 위한 허니 tip
18면 · 19면 Special
개교 7주년 학우들의 소리를 듣다
20면 Special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알려줍니다
1588-중원중원
21면 Special
중원대 상반기 우리모두 하나되어!~
체육대전
22면 Culture
대학생을 위한 필수 APP
23면 Career
취업 우리가 알려주마
24면 발전기금

개교 7주년 맞아 깜짝 간식 나눔 이벤트 열어

-500개의 밥버거와 음료 전달-



▲안병환 총장이 학생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있다.



▲간식을 전달받은 학생이 안병환 총장(우), 김두년 부총장(좌)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벤트에 참여한 항공운항학과 학생들이 간식을 들고 보직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우리대학이 개교 7주년을 맞이하여 '총장님과 학생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중원사랑 캠페인 세 번째'의 일환으로 깜짝 밥버거와 음료를 본관 로비에서 무료로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번 행사는 총장님께서 중간고사를 치른 학생들을 격려하고, 개교 7주년을 축하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안총장을 비롯한 부총장, 각 처장, 학장들이 500개의 밥버거와 음료를 학생들에게 일일이 나눠주며 격려의 말도 함께 전했다.

또한 학생들과 격식 없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총장님께 전달하는 손편지 행사도 마련하여 의미를 더했다. 손편지 대부분의 내용은 학생들을 위한 총장님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하는 마음이 주를 이뤘다.

이은정(항공운항학과 16학번)학생은 "시험기간이라 많이 지쳤는데 밥버거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학생과 소통하려는 총장님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본받아서 학교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운항인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병환 총장은 "개교 기념을 맞아 중간고사를 치루고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힘을 주고자 깜짝 간식을 준비했다"면서 "공부하는 것이 많이 힘들고 지치겠지만 항상 곁에서 응원하는 스승과 학우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학교생활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원대학교는 2014년도부터 총장과 주요 보직자, 교수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간식을 나누어주며 소통하는 '소통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사진촬영 및 취재〉
김병국, 안송미, 송예지기자

안병환 총장, 총학생회와 설렁탕 먹으며 소통



▲안병환총장(왼쪽에서 두 번째), 김두년 부총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총학생회장(왼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간부들과 설렁탕을 먹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병환 총장이 17일 괴산지역 식당에서 총학생회를 비롯한 단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외에도 김두년 부총장, 조민호 학생역량개발처장과 학생역량개발처 서영호 팀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안병환 총장이 한 학기의 임무를 마친 학생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총학생회 측이 몇 가지 안건을 준비해 이를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안병환 총장은 한 학기를 무사히 마무리해준 학생회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올바른 학생회의 역할과 발전방향도 조언하였다. 그는 "총학생회가 우리 대학 학생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좋은 프로그램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안 총장은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하겠다"며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학생과 학교가 조화롭게 엮여 다양성을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표 학생회장은 "소통의 장을 제안해주신 총장님께 감사드린다. 옆집 삼촌처럼 설렁탕을 먹으며 격식 없이 대화를 가질 수 있어 좋았다"며 "오늘의 계기를 통해 다음에는 학생회에서 총장님을 모셔서 대접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5대 총학생회 GIANT는 김광표 회장을 필두로 이관식 부회장, 기획정책국장, 전찬영, 교육복지국장 김미래, 재정사무국장 양영주, 문화체육국장 박명진 등 총 59명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학교의 지원을 받았던 여타 학생회와 달리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편집부〉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식 개선 체험' 행사 가져





▲본교 재학생들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체장애체험(사진-좌)과 청각장애체험(사진-우)을 하고 있다.

우리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4월 28일 장애체험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학생지원센터장, 교무처장, 총무처장을 비롯한 보직교수들과 재학생 2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장애체험행사의 주된 체험으로는 시각장애체험, 청각장애체험, 지체장애체험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장애에 대한 친근함을 유도하고자 이벤트로 기획하여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상품도 제공하였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이자은(의약화학과 14학번)학생은 "이번 행사에서 진행한 체험을 통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고충을 알게 되었고, 교내·외에 있는 장애학생 및 장애인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도움을 줘야할지 알게 되었다"고 행사참여 소감을 밝혔다.

조민호(장애학생지원센터) 센터장은 "장애학생 및 장애인에 대한 재학생, 교·직원들의 재인식을 도야*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여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자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장애학생지원센터는 2014년에 개설되어 2015년도 대구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점자도서관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2016년도에 괴산군장애인복지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본교 장애학생들의 편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와 협동하여 괴산군내 장애인에 대한 복지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교·내외로 노력하고 있다.

*도야 : 인간의 소질이나 능력을 계발하여 바람직한 상으로 형성하는 과정.

임태균기자 tg0610@jwu.ac.kr

직장예비군대대 창설식 개최!





▲직장예비군대대 창설식에 참여한 본교 직원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안병환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이 직장예비군대대 창설식을 환영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우리대학이 지난 7월 6일 오전 11시 대강당에서 직장예비군대대 창설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중원대학교 총장, 괴산부군수, 37보병사단장, 37사단 관계자, 교직원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창설식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창설경과보고, 창설신고, 대대장선서, 부대기 수여와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중원대학교대대는 지난 5월 9일 예비군대대 편성 승인을 받고 강필순 대대장(학군 24기, '86년 임관)을 임명하고 예비군대원 510명으로 직장예비군대대를 창설 하였다.

박신원 소장(제37 보병사단장)은 "중원대 예비군대대가 창설됨에 따라 학사일정에 맞춰 예비군훈련을 할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의 학업여건이 보장되게 되었다"며 "중원대의 명예와 긍지, 자부심을 가지고 대학직무와 학업을 하다가 유사시에는 자랑스런 조국의 부름에 기꺼이 응해 국토방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안병환 총장은 "이번 직장예비군대대 창설로 우리대학이 지역향토방위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學·軍관계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며 "강필순 대대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본교 예비역들이 '국가의 안전이 곧 우리의 미래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예비군 임무 수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직장예비군대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편집부〉

중국 소흥문리대학 학술 교류단 방문



▲김두년 부총장(아래 왼쪽에서 일곱 번째)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소흥문리대학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있는 소흥문리대학 학생들.

중원대학교(총장 안병환)와 협력체결 대학인 중국 소흥문리대학 교류단이 7월 12일부터 약 한달 간의 일정으로 교수 2명과 학생 49명이 방문하였다.

이 기간 동안 중국 소흥문리대학 교류단은 체류 중 중원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영어, 대중문화, 교육학, 의료보건, 법학, 골프, 태권도, 수영, 한국어 등의 다양한 수업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고,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또한, 주한 중국대사관 고수산 서기관의 특강도 마련되어 있다. 더불어, 양교간의 학술교류 활동으로 7월 1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약 3개월간 오승규 교수(중원대 법학과)와 반성표 교수(소흥문리대학 법학대학)가 〈한국과 중국의 법제도 비교 연구〉라는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원대학교 대외협력처장 김성호 교수는 "우리대학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교류 활동을 통해 소흥문리대학과 학술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중국학생들이 전공수업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도 익히고 글로벌 마인드도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흥문리대학 정흔첨(程欣添) 학생은 "처음 중원대학교를 보고 한국에 이렇게 웅장한 학교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며 "앞으로 교류 기간 동안 한국문화도 익히며, 많은 한국 친구들을 만나서 친분을 쌓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소흥문리대학은 소흥시정부에서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 추진하는 '300인 계획'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소흥시정부의 지원을 받아 중원대학교와의 교류활성화 방안으로 중원대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다. '300인 계획' 프로젝트는 30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해외에 파견(유럽, 미국, 아세아)하여 학점도 이수하고, 그 나라의 문화도 익히는 프로젝트이다. 〈편집부〉

학교단신

괴산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 위 · 수탁 협약

지난 6월 20일 우리대학 산학협력단이 괴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선정되어 괴산군과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였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등 전담인력이 부족한 100인 미만 유치원, 보육시설의 영·유아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영양 · 위생관리 표준화와 식단개발·공급, 순회방문을 통한 급식소별 맞춤형 지도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 식생활 개선에 앞장서게 된다. 괴산군 위수탁 2016년 사업비는 1억원(국비 50%, 군비 50%)으로, 위탁기간은 2016.6. 20. ~ 2018. 12. 31.이다.

신정철 교수, 아트 콜라보레이션 작가 선정

산업디자인학과 신정철 교수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소재한 국제금융센터(IFC) MALL에서 주최한 '아트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Art Collaboration Project)' 작가로 선정되어 여름시즌(2016년 6월 1일 ~8월 31일)동안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신정철 교수가 선정된 아트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는 IFC MALL에서 1년 4명의 작가를 선정하여 각 작가의 작품을 쇼핑몰 전체 그래픽디자인과 광고디자인에 활용하는 아트+비지니스 프로젝트이다.

중원대-서울더블유치과병원 지정병원 협약

우리대학과 서울더블유치과병원(병원장 이종팔)과 22일 지정병원 협약을 맺고 다양한 의료혜택을 제공받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중원대학교 교직원과 재학생, 가족이 서울더블유치과병원을 이용할 경우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재학생 대상 교정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항공 승무원의 꿈을 열다!

중원대, 항공서비스학과 제복 착복식 가져



▲항공서비스학과 재학생들이 착복식을 마치고 본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대학 항공서비스학과 신입생 45명이 4월 27일 CEO룸에서 2016학년도 착복식을 갖고 항공승무원의 꿈을 키웠다.

이날 행사에는 안병환 총장을 비롯한 이호일 항공대학장, 항공서비스학과 교수 및 재학생들이 참석해 항공승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신입생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항공서비스학과 선배들이 후배들의 제복에 명찰을 달아주면서 항공서비스 종사자로 갖춰야 할 올바른 자세와 성품을 4년간 배우고 익힐 것을 선서했다. 특히 4년 뒤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 '느린 우체통' 행사도 가져 그 의미를 더했다.

행사를 기획한 이연숙교수(항공서비스학과 학과장)는 "이번 제복 착복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소속감과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기획했다"고 밝히며 "나아가 제복은 항공서비스 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 실천적 행동 등을 완성하겠다는 다짐을 의미하므로 진정한 서비스인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나혜원(항공서비스학과 16학번) 학생은 "입시 때부터 도움을 주신 선배가 명찰을 달아줘서 다시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다. 앞으로 항공서비스학과 일원으로서 자질과 실력을 갖춘 멋진 승무원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신설된 항공서비스학과는 항공사에서 객실승무원으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 교수진의 맞춤교육으로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다. 〈편집부〉

2016년도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마치고 간호학과 교수님들과 3학년 학생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우리대학 간호학과(학과장 이정숙)가 지난 4월 28일 대강당에서 제4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

선서식에는 의료보건대학장을 비롯한 내외귀빈과 간호학과 재학생 및 학부모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전문 간호인으로서의 출발을 축하해줬다.

행사는 촛불점화와 나이팅게일 선서, 격려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후배들의 축하공연과 선물증정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날 선서식에 참여한 3학년 학생 64명은 엄숙한 촛불의식과 선서를 통해 나이팅게일의 생명존중과 숭고한 간호 정신을 이어 받을 것을 다짐하고 병원에서 예비 간호사로서 임상실습을 시작한다.

김흥기(간호학과 12학번)는 "입학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선서식을 하고 임상실습에 나가게 된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이번 선서식을 통해 후배들과 교수님들의 응원 덕에 두려움이 기대감으로 바뀌었다"며 "최선을 다해 실습에 임해서 더욱 발전하고 성숙한 간호사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지홍 의료보건대학장은 격려사를 통해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항상 훌륭한 간호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책임감 있는 간호사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얼마 전 심폐소생술로 시민을 구한 타 대학 간호학과생의 일례를 들며 진정한 나이팅게일로 거듭나길 당부했다.

한편 중원대학교 간호학과는 물론 작업치료학과도 국가시험에서 100% 전원 합격과 100% 취업의 성과를 이루고 있어 충북지역 의료보건대학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사진촬영〉
김병국, 안송미, 이지은기자

산업디자인학과, 지역사회에 벽화그리기 재능기부 활동 펼쳐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이 봉사를 마치고 지역 경찰관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희망의 메시지를 캘리그래피로 그리고 있는 모습.



▲학생들이 이발관에 벽화를 그리고 있다.

우리대학 산업디자인학과가 4월 25일 증평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매년 이뤄지고 있는 벽화그리기 재능기부 활동을 가졌다.

이날 진행된 봉사에는 산업디자인학과 학생 총 34명이 4팀으로 나뉘어 참여했고 오전, 오후에 걸쳐 밋밋하고 초라했던 공간과 벽을 따뜻한 문구와 생동감있는 벽화로 탈바꿈 시켰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당신의 사랑이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내일도 당신을 보고싶어요' 등의 희망의 메시지를 캘리그래피로 벽화와 함께 그려 넣음으로 여느 벽화들과의 차별성을 만들었다.

행사를 지켜본 이아람(산업디자인학과 학과장) 교수는 "몇 년 동안 벽화봉사를 계속 진행해 왔지만, 갈 때마다 학생들이 직접 계획, 시안 등을 짜면서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서 만족스럽다"며 "매일 과제를 하느라 전공실 안에서만 작업을 하다가 벽화를 그리러 가면 더 활기차지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같이 즐거워지고 대견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유정(산업디자인학과 15학번) 학우는 "밋밋했던 벽들이 벽화로 인해 화사해진 것 같아서 좋았다"며 "지나가시는 분들이 칭찬해주고 그리는 그림을 보고 좋아해주셔서 기뻤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14년도부터 매년 진행되는 벽화그리기 봉사는 학교가 위치한 괴산, 증평지역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의 미화조성으로 중원대학교의 이미지 향상과 산업디자인학과의 발전가능성을 보여주며, 나아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봉사의 즐거움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선사하는 뜻 깊은 행사이다.

임태균 기자 tg0610@jwu.ac.kr

세계대학양궁선수권대회 단체 우승!

(김종호, 양영호, 김정민)



▲양영호, 김정민, 김종호 학우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우리대학 김종호(레저스포츠학과 13학번) 학우가 2016 세계대학양궁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에 등극하며 한국 양궁대표팀의 종합우승을 이끌었다.

지난 6월 1일부터 5일까지 몽골 올란바토르에서 열린 2016 세계대학양궁선수권대회에서 한국 대학대표팀이 10개 종목 중 금메달 8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하며 종합우승을 하였다.

김종호(레저스포츠학과 13학번)는 컴파운드 개인전 결승전(50M, 3발 5엔드, 150점 만점) 정상에 올랐지만, 아쉽게도 김정민(레저스포츠학과 16학번)과 양영호(레저스포츠학과 13학번)는 각각 8, 16강전에서 패했다.

컴파운드 단체전(50M, 3인, 6발 4엔드, 240점 만점)에서는 남자부 김종호, 김정민, 양영호가 결승에서 러시아를 227-226 1점 차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혼성팀전 결승전(50M, 2인, 4발 4엔드, 160전 만점)에 김종호-고소영은 터키를 157-156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대회역사상 처음으로 단체(중원대)가 단일팀(남자부)으로 참가하여 전종목 우승하였다. 〈편집부〉

Candy's

사탕처럼 달달하고 과일처럼 상큼한 중국인 유학생 댄스 팀 Candy' s를 소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원대학교 외국인 댄스 팀 Candy's입니다. 멤버는 이노우에 미유(국제교류센터 직원), 왕금국, 요몽정, 유란영, 마이나입니다.



▲캔디스 댄스팀이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

Q. 댄스팀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A. 올해 3월 14일부터 팀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어요.

Q. 댄스팀을 결정한 계기는?

A. **미유** 외국인 학생들이 저녁 때 심심해하고 춤도 좋아해서 취미생활 겸 해서 만들었습니다.

Q. 캔디즈 의미?

A. **왕금국** 팀 이름이 Candy's 인 이유는 멤버 구성원들이 다 여자이고 캔디처럼 달달 하고 귀여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Candy's로 만들었어요. **미유** 이름을 지을 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샤브샤브? 부대찌개 같은 한국적인 이미지의 이름을 지으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팀명을 지은 이유가 외국인 장기 자랑 대회에 나가려고 만든 것인데, 외국인이 한국어를 공부 하고 있으니까 임팩트 있는 이름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Candy's로 하였습니다. 대회에는 아쉽게도 나가지 못했지만, 지금도 꾸준히 연습하고 있어요.

Q. 연습하고 있는 곡이 있나요?

A. **미유** '오늘부터 우리는' 그리고 'pick me'를 연습하고 있답니다.^^

Q. 보통 연습 시간은?

A. **왕금국** 보통 연습하면 일주일에 2번씩 19시부터 21시까지 연습해요. 부족하다 싶으면 그 시간 이후 까지 연습을 하구요.

Q. 한 곡을 계획부터 춤을 완성 시킬 때까지 어느정도에 기간이 소요 되나요?

A. **미유** 2분정도 편집해서 연습을 하는데 곡 선정부터 춤을 완성시키기 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거 같아요.

Q. 춤 연습하면서 어려웠던 점?

A. **유학생 전체** 춤을 추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어요. **마이나**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 있어서 서로 맞추기가 힘들었어요. **유란영** 다른 춤을 배울 때 기존에 익혔던 춤이 오버랩 되면서 헷갈리기 시작할 때 힘들었어요. **요몽정** 미유 선생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저는 딱히 힘든 것이 없었어요. **미유** 어떤 춤을 출지 결정 할 때가 힘들었어요. 서로 하고 싶은 것도 다르고 누구는 멋있는 거 하고 싶다 하고 또 귀여운 것을 하고 싶다, 섹시 한거하고 싶다 해서 결정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자 친구' 곡은 춤이 맞아야 예쁘잖아요. 그게 항상 동영상 찍으면서 보면 타이밍이나 위치가 다르니까 맞추기가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Q. 앞으로의 계획은?

A. **미유**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와 생활관 중고장터에 게스트로 나가게 되었는데, 앞으로 계획은 더 연습하여 학교 행사나 이벤트 때 한번 나가 보는 것이에요!

Q. 한국친구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A. 한국인 친구참여는 지금은 따로 모집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기회가 되면 2학기 때 할까 생각중입니다.

Q. 활동 소감?

A. **요몽정** 활동 소감은 한국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취미생활도 갖고 싶었는데, 이러한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이나** 저두요.^^ 또 춤추는 것이 힘들었지만 한국어를 배울 수도 있고, 무엇보다 다이어트가 돼서 기뻐요! 춤추면서 3kg 뺐어요! **왕금국** 한국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그 시간에 심심하니까 취미생활로 하기 시작했는데, 춤을 추면서 운동도 돼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미유** 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추억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 주고 싶었어요.^^

Q.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이나 바라는 점이 있나요?

A. **왕금국** 우리는 보통 서울이나 청주를 가는데 다른 곳도 가보고 싶어요. 한국 친구와도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몽정** 한국 친구를 많이 만들어서 밖에서 놀고 싶어요.

Q. 우리학교에 와서 좋은점은?

A. **왕금국** 여러 나라에 친구들을 만들 수 있고, 놀 수도 있어서 좋아요 **유란영**, **요몽정** 환경적인 요소가 좋은거 같아요. 공기도 깨끗하고. **마이나** 중국에서 다니던 학교는 여자가 많았었는데, 남자가 많아서 좋아요!

Q. 학교에 외국인 학생으로서 바라고 싶은 점이 있다면?

A. **마이나** 한국 친구를 많이 만들 수 있게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중국 친구들만 생활하다 보니 한국 친구를 만날 기회가 없어요.

팀 이름처럼 20~21살답게 이야기만 듣고 있어도 발랄하고 20대 초반의 풋풋함을 느낄 수 있는 캔디즈였습니다. 비록 외국인이라 한국어가 아직은 서툴러도 그 열정을 말할 때는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캔디즈 구성원 모두가 한국에서 좋은 추억만을 가지고 본국에 돌아가길 바랍니다.

최병근 기자 root@jwu.ac.kr

안송미 기자 thdalland@naver.com

생약자원개발학과 전공연계 봉사활동 가져



▲생약자원개발학과 4학년 학생들이 괴산아동복지센터 아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비누 만드는 법을 설명해주는 생약자원개발학과 학생들.

우리대학 생약자원개발학과가 6월 1일 괴산아동복지센터에서 한방 비누만들기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번 봉사활동은 생약자원개발학과 민영실 교수가 졸업을 앞둔 생약자원개발학과 4학년 학생들이 그 동안 배운 생약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학생들과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공연계 봉사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날 자원봉사에는 8명의 생약자원개발학과 4학년과 20명의 아동센터 원생들이 참여했으며 쑥스러움과 산만함이 산재한 시작과는 달리 원리를 이해한 뒤 사뭇 진지한 태도로 비누만들기에 임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인상 깊은 행사였다.

이윤숙(괴산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은 "중원대학교 생약자원개발학과 학생들의 비누만들기 봉사를 통해 아이들이 흥미롭게 비누를 만들고 비누의 촉감과 향을 통해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전공연계 활동이 지역의 아동뿐만 아닌 주민들을 위해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박소연(생약자원개발 13학번) 학우는 "지역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하다"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이미 천연비누를 접해보아서 놀랐고 천연물이 일상에서 친숙하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기분 좋은 봉사를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생약자원개발학과는 지난주 괴산노인복지관에서 한방약차 체험활동을 펼쳤으며 올해부터 매 학기당 2회의 전공연계 봉사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태균 기자 tg0610@jwu.ac.kr

총학생회 후배들 위해 독특한 성년의 날 행사 열어 눈길!



▲총학생회 임원들이 성년을 맞은 학생들에게 줄 장미 꽃송이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총학생회 GIANT(김광표 회장, 11학번)가 16일 본관 로비에서 올해 성년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총학생회가 올해로 만 20세가 된 1997년생 학우들을 축하해주고 성년으로서의 책임감을 일깨워주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으며, 성년을 맞이한 500명 학생들에게 장미꽃과 커플 양말 등을 전달하고 폴라로이드 사진촬영 이벤트도 진행했다. 또한 제비뽑기 이벤트를 통해 향수, 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을 증정했다.

김광표 총학생회장은 "성년이 된 후배들을 축하하며, 학생들이 즐겁고 재미있는 학교생활을 하길 바라면서 기획했다"고 말하며 "응원해주는 선배들을 보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진정한 어른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년을 맞은 김유민(항공서비스학과 15학번)은 "남자친구도 챙겨주지 않는 장미꽃을 선배님한테 받게 되어 감동 받았다"며 "취업난 때문에 성년이 달갑지 만은 않다. 그래도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선배들을 보고 멋진 성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원대 GIANT 총학생회는 이번 행사를 비롯하여 학생들을 위한 나눔과 배려 행사를 꾸준히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말고사 때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햄버거를 나눠주는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편집부〉

마음이 따뜻해지는 따가움!



▲RCY단원인 홍유경(보건행정 15학번) 학우가 헌혈에 참여하고 있다.

RCY의 홍보가 빛낸 헌혈 행사

4월 21일 목요일 우리대학에서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과 우리대학 공동으로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

이 날 행사에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RCY(청소년 적십자)'단원 20명이 SNS와 본교 곳곳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 120여 명이 사랑의 헌혈 행사에 참여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행사에 참가한 차정훈(의생명과학 15학번) 학우는 "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괴산에 마땅한 헌혈 장소가 없었는데 학교에서 헌혈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가하게 되었다"며 "제 참여가 한 생명을 살리는데 쓰일 것을 생각하니 뿌듯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RCY' 부회장인 윤여민(경찰행정 11학번) 학우는 "시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어 홍보를 하는 입장에서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RCY활동은 대·내외적인 봉사활동 경험과 동시에 자신의 시야를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깨알 같은 홍보도 전했다.

김승기(충북혈액원 헌혈담당)씨는 "학생들이 100명 이상 참가하는 대학이 손에 꼽힌다"며 "중원대학생들의 참여의식에 깜짝 놀람과 동시에 감동 받았다"고 중원대학생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한편, 3월에 창단 된 중원대 'RCY'는 이번 헌혈 홍보활동을 기점으로 4월 30일 벽화그리기 봉사와 5월 7일 충북봉사페스티벌에 참여하여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임태균 기자 tg0610@jwu.ac.kr

유네스코 볼런티어

DO IT !

동물을 생명으로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4기 유네스코 볼런티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강아지 똥' 팀입니다. '강아지 똥'은 동물 보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학과와 학년에서 모인 11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2016년도 '제4회 유네스코 볼런티어 프로젝트'에 선정 되셨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에는 설렘과 걱정이 섞인 채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면접을 준비하였는데 최종 선정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팀원들과 함께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 팀명을 '강아지 똥'이라고 지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자님도 어린 시절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를 본적 있으시죠? 동화 속에서 강아지 똥은 아무도 관심가지지 않는 쓸모없는 존재였지만 민들레를 만나 꽃을 피우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작은 민들레가 강아지 똥에게 희망을 준 것처럼 '강아지 똥' 팀원들 또한 동물보호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식의 변화라는 꽃을 피우고 싶다는 염원을 담아 '강아지 똥'이라는 팀명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4. 볼런티어 프로젝트는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환경/생명 분야를 주제로 '대학생 동물보호 프로젝트 Do It!'을 진행할 예정으로 동물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중점적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기동물 중계분양,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활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5. 활동 기간은 6개월입니다.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활동하면서 이루고 싶은 것들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인 동물이 처한 현실을 알려, 생명의 존귀함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동물권의 인식 제고를 실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관련법에 대한 제정을 목표로 행동할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항상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복지에 대해 막연히 유기되거나 학대당하는 동물들이 불쌍하고 안쓰럽다는 생각만 가집니다. 그래서 'Do it!'을 통하여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나아가 개개인이 직접 동물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싶습니다.



▲강아지 똥 팀원들이 체전 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6. 프로젝트를 하고 싶을 학우들을 위해 간단하게 방법을 소개해주세요!

저희 강아지 똥 팀은 교외는 물론 교내에서의 홍보활동도 활발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내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학우 여러분들의 참여입니다. 5월 25일 교내 단대체전에서 진행한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에서 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가 저희 프로젝트의 시작에 있어서 소중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내에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NS를 이용하여 컨텐츠를 제작 및 배포하려 합니다. 페이스 북과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에서 '강아지 똥'을 검색하여 친구추가 후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기사를 보고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학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무엇인가에 도전할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머릿속으로만 상상하지 마시고 실제로 직접 발로 뛰어 실천해 본다면 두 눈으로 그 결과를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행동으로 실천 하시길 바랍니다!

최병근 기자 root@jwu.ac.kr



중원이와 함께하는

여름방학 이런 계획 어때?



제11호 2016년 7월 25일 월요일





2016년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마치고...



▲왼쪽에서부터 김송희, 김예림, 김현정, 김혜연(14학번)





▲김흥기(간호학과 12학번)

1. 김송희/14학번/ 간호학과 에서 가장 의미 있고 큰 행사인 만큼 후배들의 공연도 너무 감동적이었고 스스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간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뜻 깊은 날이었습니다.

2. 김예림/14학번/ 엊그저께만 해도 제가 선배님들의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축하해드렸는데, 이제는 제가 후배들한테 축하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축하해주신 교수님과 선배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시험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준비해 준 후배들한테 너무나 고맙습니다. 선서식을 했으니 실습에 나가서 학생간호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더 배우고자 하는 모습으로 임상실습에 임하겠습니다.

3. 김현정/14학번/ 대학교에 입학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학년이나 되었네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대학교 들어왔을 때는 마냥 들떠서 놀고 싶었는데,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함으로써 마음가짐을 재정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나이팅게일 선서문에서 외쳤듯이 의롭고 정의로운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마친 모든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간호학과 파이팅!

4. 김혜연/14학번/ 후배들이 알차게 준비해준 나이팅게일 선서식이라서 그런지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하고 나니 간호사라는 꿈에 한층 가까워진 것 같아서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5. 김흥기/12학번/ 오늘 선서식을 통해서 나이팅게일의 간호정신을 다시 되새길 수 있었고, 응원해주시는 교수님들과 선후배 분들께서 임상에서 예비간호사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자들에게 사랑과 희생, 봉사를 실천하는 간호 전문직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습 나가는 후배에게 한마디~



민흥기/13학번/
오늘 지금까지 수고한 멘티를 축하해주러 왔는데 너무 수고 많았어. 후배들아! 똑똑한 간호사도 좋지만 가슴이 따뜻한 간호사로 병상에 서길 바래!



이수린/13학번/
제3회 나이팅게일선서식 너무 축하해! 후배들아,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하고 간호하는 간호사로서, 중원대를 이끌어 나가는 멋진 선배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 또한 멋진 선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박유진/14학번
실습하면서 서러운 일도 생기고 다리도 많이 아프고 힘들지만 의욕이 있고 성실하게 간호사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우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힘내!

실습 나가는 선배님께 한마디



김현영/15학번/
간호학과 선배님들 요즘 학업과 실습에 많이 지치셨을 텐데 열정적이고 진지하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준비하시고 임하시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의료인으로써 사명을 다하실 모습을 생각하니 자랑스럽습니다! 가끔 힘드실 때 저희 후배들이 선배님들을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선배님들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중원대 간호학과 파이팅!

안송미 기자 thdalland@naver.com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도약을 꿈꾸며

"체력, 인성을 중점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키우고파"

2016년도는 안병환 총장이 우리대학에 부임한지 4년째 되는 해이다. JR(Jungwon Reporters)은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힌 안병환 총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임기 4년간의 소감과 향후 우리대학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총장이 학생기자들과 인터뷰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학생기자와 인터뷰하는 안병환 총장.

벌써 총장으로 부임하신지 4년차가 되어 가시는데 임기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셨는지?

자랑스러운 우리학교에 취임해 학교의 틀을 튼튼히 하고 학교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라기 보단 '2014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기관 인증평가'와 '2015년 대학 구조 개혁 평가'를 전 교직원 및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해 준 덕분에 거뜬히 통과 할 수 있었던 점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충북지역에서 가장 짧은 역사를 지닌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뿌듯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학교 발전을 위해 숨 가쁘게 전진하셨습니다. 그런 만큼 차마 신경 쓰지 못한 채 지나친 부분도 있을 텐데요. 어떤 것입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앞만 보고 달리면 항상 소소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차마 신경을 못 썼던 학생들의 의견이나 건의들은 작은 것도 잊지 않은 채, 끊임없는 수정과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조금 더 다양한 교과목과 교육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는데 끊임없이 노력 할 예정입니다.

중원대학교에서 다양한 외국인 학생들을 볼 수 있는데,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발전 계획과 비전이 있으시다면?

회의 때 자주 언급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유학생을 1,000명이상 유치하자'라는 계획입니다. 현재 중국의 한 대학에서는 중원대학교 간호학과반을 만들어 100여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북경에 중원대학교 캠퍼스를 개설하여, 올 2학기부터 희망자에 한해 중국 캠퍼스에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기숙생활을 하며 교육받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여러분들이 스스로 충분한 준비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뛰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말하는 이 순간에도 가슴이 벅차게 뛰어 오릅니다!

최근 타 대학들이 획기적인 교육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하대는 일 년에 두 번 있는 졸업식을 한 번으로 줄였고, 고려대는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장학금을 늘리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도 이와 비슷한 획기적인 정책을 시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에 가장 맞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임기 초에 기숙형 대학교라는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통해 정규수업 후 '잃어버린 5시간을 찾자'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타 대학 학생의 통학 시간을 우린 학교 특성을 살려 절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한 말입니다. 따라서 최근 비교과 과정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조금 더 다양하고 심화적인 과정을 학습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야간 시간을 활용하여 동아리활동과 스터디활동 지원책을 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대학만큼 교내의 교육환경 또한 중요하다 여겨지는데, 우리대학이 추구하는 교육환경이 있다면?

강의실 실험·실습기자재들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더 나은 학습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학생들이 약간의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를 감내하고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 많아 굉장히 고맙습니다.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할 때 충고나 조언 등 졸업하기 전에 꼭 해야할 일,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신다면?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튼튼한 체력을 가지길 바랍니다. 요즘 같은 인생 100세 시대에는 지덕체보다 체·덕·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라는 노랫말을 떠올려보면 어떨까요(웃음)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옳고 틀린 선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섭렵하고 간접적인 경험을 늘려 지혜를 쌓길 바랍니다. 단언컨대, 인생이 달라집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중원 아들, 딸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정을 걷는 학생들을 보면 아들, 딸 같아 항상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첫째, '자기긍정을 습관화 하라'. 자신을 칭찬하고 긍정적인 말로 스스로를 독려할 수 있는 습관을 갖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도전하라'. 성공의 반대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실패를 한다고 성공을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을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방학기간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 추억 많이 쌓길 바랍니다!(웃음)

때때로 긴장된 분위기에서 유머를 발휘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리드하시는 모습에 우리가 멀게만 생각하던 총장님의 모습은 오해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가까이서 느낀 총장님은 누구보다도 학교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학생들을 생각하는 분이였습니다. 여러분도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인사를 건네며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김병국 기자 kbk0777@jwu.ac.kr

이지은 기자 wldms351@jwu.ac.kr

제11호 2016년 7월 25일 월요일

중원은 세계로, 세계는 대한민국으로

JWU in 人

중원의 숨은 일꾼을 찾아서

개교 7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주위에서 쾌적한 환경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매점, 스포츠센터, 영어교육원, 경비실, 교운부, 식당을 찾아가 어떨 때에는 기분이 좋고 아쉬움을 갖는지에 관해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1. 투철한 서비스 정신으로 웃음을 잃지 않는 매점의 강인선 선생님

근무는 09년도부터 했네요(웃음). 하는 일은 매점 관리, 판매, 진열을 주로 해요. 매점에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오래 근무하다보니 알아보는 학생들이 있어 인사나 안부를 물을 땐 일하는 데에 있어 소소한 활력소가 되곤 해요. 반면에, 예의를 지켜주지 않는 학생들이 있을 땐 속상하기도 하지만 이게 서비스업 아니겠어요?(웃음)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학교는 학생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 생각해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교를 아끼고 사랑해줬으면 해요.



2.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힘쓰는 에너자이져 스포츠센터 이재용 · 강선구 선생님

근무는 11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골프장 및 스포츠센터의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넓은 구역을 관리해야 하는 업무특성상 힘들 때도 있지만 센터 내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끼죠. 아쉬운 점은 골프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수 백 만원씩 주고 배우지 말고 학교 시설을 200%활용해서 배우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휘트니스 동아리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한마음 축제 때 보디빌딩으로 '몸 짱 페스티벌' 대회가 열리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요?(웃음)



3. 여러분이 제 보람입니다. 영어교육원 김은정 선생님

09년도부터 중원대와 함께 하고 있어요. 학생들과 좋은 프로그램(영어말하기 대회, 영어캠프)을 연결해주는 다리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새로 진행되는 FOS 프로그램이 이수시간이 많아서 많이 부담스러울 텐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학생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더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 아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즐겁게 프로그램에 참가해주고 만족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해요(웃음) 곧 영어교육원의 웹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리고 여러분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위해 힘쓰겠습니다(웃음).



4. 성우급 목소리와 카리스마를 겸비한 경비실 임춘호 선생님

2009년도부터 일을 하고 있어요. 주로 교내에 출입하는 차량의 통제. 주차관리, 보안순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춥고 더울 때 야외에서 업무를 하지만 직업 정신으로 극복한지 오래입니다. 학생들이 웃으면서 인사해줄 때 기분이 좋습니다(웃음). 가끔 통제에 따라주지 않는 학생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즉시, 통제에 따라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내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30분에 만나요 읍내셔틀버스 임보규 선생님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학생들이 요구에 잘 따라주고 내릴 때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라는 말을 해줄 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운행할 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특정 시간에 버스가 꽉 차서 학생들을 못 태울 때 아쉬워요. 특히 눈이나 비가 올 때 더욱 안타깝습니다.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냄새가 나는 음식은 다 먹은 후에 탑승해주길 바라고 들고 탄 쓰레기는 내릴 때 가지고 내려주는 에티켓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학창시절 동안 좋은 경험과 추억을 남기고 지내줬으면 합니다.



5. 삼시세끼는 꼬박꼬박 식당 김현순 영양사님

09년도 개설한 후부터 일했습니다. 학생들이 맛있게 밥을 먹고 인사해줄 때 기분이 좋습니다. 학생들에게 싸고 맛있는 밥을 주고자 하지만 항상 맛있는 음식만을 제공할 수 없어서 아쉬워요. 껌을 식판에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것만 없다면 더욱 쾌적한 식당을 만들 것으로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영양사도 최대한 노력을 할테니 열심히 공부해서 잘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김병국 기자 kbk0777@jwu.ac.kr
임태균 기자 tg0610@jwu.ac.kr

최재영 교수 미래부 연구개발사업 'X-Project' 선정

"어려운 것에 대한 도전의식과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한다."



유수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X-Project 중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자동인식 기술 개발'에 선정된 중원대학교 최재영 교수(의료공학과)는 총 1억 5000만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으며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최재영 교수는 연구개발에 앞서 이번 연구 선정에 대한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연구에 선정되기 위한 후보들이 굉장히 쟁쟁하였는데 이러한 후보들과 겨루어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력을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머신러닝과 패턴의식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꾸준히 해오며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으며 책을 집필하는 등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갔습니다. 또한, 국내외의 협력기관을 사용하여 연구 도중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갔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트랜드에 맞는 연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과정과 이와 맞는 연구주제가 이번 연구에 선정된 이유인거 같습니다."

이번 연구에 중점을 두시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완성도와 혁신성이 높은 연구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를 해오며 기술이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이러한 축적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완성도와 혁신성이 높은 결과를 내려고 합니다."

이번 연구를 학생들과 같이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타 대학과는 다르게 기숙형 학교라는 특성상 학생들과 교수가 만날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잦은 만남과 시간이 기반이 되어 함께 연구를 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연구를 참여함으로써 주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나 의료공학에 대한 전문성이 조금 더 깊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교육자의 입장이기에 학생들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성장해 가고 그러한 노력들이 기반이 되어 학생들이 자기 꿈을 펼치길 바랍니다.

과제에 임하는 각오

"이번 연구가 잘 진행되어서 제가 개발해낸 기술이 그저 연구에서 끝나지 않고 산업체에 기술이 이전되어 일상생활에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연구가 끝난 뒤 결과가 좋아 후속으로 다른 연구를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항상 도전정신과 적극적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기의식을 가지고 어려운 것에 대해 적극적인 도전을 해보며 자신감과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미래는 노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가능성을 열려있으며 항상 노력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김병국 기자 kbk0777@jwu.ac.kr

고시원에서 웃난다

중원대 고시원 등록이
저에게 합격의 길을 열어줬죠

고시원에서 좋은 소식이 있다는 말에 부리나케 달려가서 만난 염장성(경찰행정학 11학번) 학우. 1년이라는 짧은 수험기간으로 당당히 경찰공무원에 합격한 염장성 학우를 JR이 인터뷰 해보았습니다.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고시원에서 공부 중인 염장성 학우.

1. 인터뷰에 앞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11학번 염장성입니다.

2.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꿈꿔오던 꿈을 이루어 정말로 기쁩니다.(웃음) 수험기간동안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최종 합격을 한 제 자신에게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경찰로써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3. 1년 동안의 수험생활은 어땠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1년 안에 합격한 원동력은 수험기간동안 인터넷강의를 활용하여 합격이라는 목표로 꾸준히 공부해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하루에 최소 14시간씩은 공부하였고, 긴 수험기간을 대비하여 운동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남들처럼 뛰어난 머리가 아니어서 남들의 배로 공부하자는 마음으로 공부에만 전념하였습니다.

4. 흔히 말하는 노량진 등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고, 교내 고시원에서만 공부해서 합격했다고 들었습니다. 교내 고시원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무료로 인터넷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고시원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을 다니게 되면 학원비와 각종 식비 교통비등 돈의 부담이 많아지는데, 중원대 고시원의 경우는 강의만 들으면 인터넷 강의료를 100% 환급해줘서 강의를 들어야겠다는 자극도 들고 그로인해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엄격한 출석체크 및 관리로 공부할 사람들만 모아서 운영하는 것이 고시원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5. 공무원이 되기 위해 힘쓰는 학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시험에 영어라는 과목은 공무원시험의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수험기간동안 공부함에도 합격하지 못 한 분들의 대부분이 결국은 영어 한 과목 때문에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영어는 나중에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영어 단어를 10개씩만 외워도 1년 안에 합격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6. 수험기간 중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다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분은 부모님입니다. 집에서 굶지 말라고 밥 챙겨주시고, 인터넷강의비용과 책 값 등을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지원해주신 부모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시원장님이신 조계표 교수님이 생각납니다. 대학생활 동안 고시원에서 공부할 때 찾아오셔서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주셨고 앞으로의 공부 방향 및 커리어에 대해 조언해 주신 것이 제게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7. 자유롭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많은 합격수기에서 말하듯이 저 역시 체력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체력이 부족하면 결국은 지치게 됩니다. 공무원시험 합격 평균 기간이 2~3년입니다. 저 역시 1년 동안 운동을 꾸준히 하며 체력을 관리했지만 체력이 바닥나기 일쑤였습니다. 딱, 일주일에 2~3일 정도의 운동을 해준다면 더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최종목표는 취업이나 합격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현재 위치는 대학생입니다. 대학생활을 다양하고 보람차게 보내길 바랍니다. 대학생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임태균 기자 tg0610@jwu.ac.kr

다큐3일



JR학생기자들 왼쪽에서 김병국, 이지은, 안송미, 임태균 송예지

여러분은 중원대를 얼마나 잘 활용하시고있나요? 기자 3인방 예지, 지은, 송미가 기숙사에 콕 박혀있느라 몰랐던 분들, 괴산에 갈곳이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을 위해 중원대 200%활용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중원 라이프 전격 공개 다큐 3일을 함께 떠나보아요 !

1day 중원대속에서 꽃피는 예지의 하루 일과

안녕하세요 ~! 학생기자 송예지입니다. 학교 안에서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꿀 팁을 저의 하루를 통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모두들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9:00PM - 온천장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고, 씻고 나갈 준비를 해요. 기숙사에서 씻는 것도 좋지만 주중의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가끔씩 기숙사 온천장에서 샤워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재학생은 학생증을 제시하면 3,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10:00AM - 골프장

오늘 오전은 공강!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골프를 치려고 해요. 사진에 보이는 이곳이 바로 골프장입니다. 총 9개의 홀이 있고, 중원대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이용 할 수 있답니다. 골프에 관심이 있다면, 제2의 박인비를 꿈꿔 보아요.

12:00PM - 카페테리아

너무 움직여서 배가 고프네요..제가 앉아있는 이곳은 '카페테리아' 에요.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 "나는 다이어트를 하니까 순두부찌개에 까르보나라 치즈 스파게티, 떡라면, 짬뽕 , 떡볶이 순대 모듬 튀김을.. 호로록~!"





3:00PM - 도서관

오늘이 반납예정일이어서 급하게 소설책을 반납하러 도서관에 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왼쪽 부분에 인기있는 만화책들이 모인 환상적인 책장이 있답니다. 강풀 작가의 만화, 최근 화제가 된 미생 만화책도 있답니다. 제가 요즘 미생에 빠져있어서, 잠시 '미생타임' 을 갖기로 했어요.



1:00PM - 잉글리쉬카페

점심을 먹고 난 후 잠깐의 휴식을 위해 잉글리시 카페에 들렸습니다. "May I have a cup of coffee? thank you!" 돈은 안 내냐고요? 아, 잉글리시 카페에선 모든 음료가 무료에요. 외국인 교수님과 튜터링을 하거나 친구들과 강의시간 기다리는 동안 보드게임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기도 한 이 장소는 다양한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답니다.

2day 지은이의 건강한 하루 보내기

안녕하세요! 중원대학교 학생기자 이지은입니다. 최근 가장 큰 고민은 야식으로 늘어난 제 허리둘레..
그래서! 수업을 제외한 시간에는 운동을 주로 한답니다. 재미있게 운동하는 방법을 제 하루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6:30AM - 스포츠센터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자마자 교내 스포츠센터 헬스장에서 운동을 해요! 이유는 헬스장이 오전 6시에서 9시까지 무·료·개·방! 되기 때문입니다. 무료이용과 아침형 인간,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보면 어떨까요?(오전 이외의 시간엔 학생증을 제시하면 한 달에 2만원, 3달에 5만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가능해요!)





9:00AM - 식물원

운동이 끝나고 씻고 나왔는데도 10시 수업까진 시간이 남아 식물원을 들렸습니다. 계절화초, 사철식물 등 여러 가지 식물도 보고 마음의 안정을 취해 볼 수 있는 식물원! 저녁 6시까지 개방하니 식물원에서 힐링하고 가세요~!

12:00PM - 매점

아침 강의를 듣고 나니 점심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매점에서 친구들이랑 간단하게 한 끼를 먹으려고 해요! (매점에는 친구들끼리 앉아서 맛있는 것도 먹고, 팀플도 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공간이 있답니다.) 간단하게 먹고 일어나려 했는데 수다를 떨다보니 12시 50분이네요..! 뛰어야겠습니다!!





2:00PM - 운동장

간신히 지각을 모면하고, 지금 막 강의가 끝났어요! 이제 친구랑 배드민턴을 하러 갈 거에요! 이렇게 남는 시간은 친구들이랑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해보는 것은 어떤가요?! 땀도 흘리면 기분도 상쾌하고, 친구와의 사이가 더 돈독해질 수 있을 거에요.^^ (스포츠센터 앞 운동장은 배드민턴을 하기 아주 좋은 장소에요.)





6:00PM - 만두

아, 배가 고픕니다. 왜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까요..?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선 저녁은 간단하게 먹읍시다!! (이래서 야식을 먹는다는 건 비밀^^)

8:00PM - 여자기숙사

저녁을 아주 맛있게 먹고, 몸매 관리를 위해 줄넘기를 할 거에요! 스포츠 센터 앞 운동장은 만능 운동장소이지만, 혼자 운동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밤에는 여자기숙사 1층에서 줄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 열심히 해봐요!!



다큐3일

3day

송미와 함께 하는 주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언론기자 안송미입니다.~!
다큐 3일 그 세 번째 이야기 송미의 주말 나들이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9:00PM - 괴산도서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과제도 정리할 겸, 총장님이 강조하신 독서를 실천하기 위해 괴산도서관에 들렀어요. 또한 매월 마지막수요일에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답니다. 6월에는 허브테라피, 7월, 8월에는 페인팅아트, 9월에는 허브테라피, 탄력크림만들기, 10월에는 곡물을 이용한 온열팩 만들기,11월에는 허브테라피 한방효소샴푸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확인하고 데이트코스에 넣는 것도 좋겠죠?

※이용시간 3월~10월 - 8:00~22:00 / 11월 ~ 2월 - 8:00~21:00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

☎문의 043-833-0319











2:00PM - 궁도장

괴산 궁도장

괴산에서 접할 수 있는 흔하지 않는 스포츠! 바로 국궁입니다. 국궁은 우리나라 전통 활쏘기로 쏘는 사람의 힘에 따라 줄의 장력을 조절할 수 있기에 남녀노소가 쉽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평소에 관심이 있었지만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주말에 시간을 내어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웃음)

주소 :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816-8
☎문의 : 043-832-3678

1:00PM - 탑골 만화방

평소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친구들과 괴산군 문광면 탑골만화방을 다녀왔습니다. 가을날의 은행나무 저수지로 명성이 자자한 문광저수지의 바로 아랫동네지요. 탑골만화방은 탑골마을에 있는 빈집을 개조하여 게스트하우스 겸 만화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화방에서 만화도 보고 숙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겠죠? 사진을 찍고 친구들과 소박한 이야기를 나누며 만화책을 읽다보니 벌써 점심시간이 되었네요. 친구들끼리 챙겨간 음식재료들을 가지고 부엌에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다는 장점과 무료로 쉴 수 있다는 점이 돋보이는 이색적인 장소입니다. 추천! 꾹!

※ 이용TIP
무인으로 운영지만 관리자분에게 미리 연락을 해서 이용방법을 숙지하면 더 유익하게 보낼 수 있답니다. ☎문의 : 010-9799-1776 주소 : 충북 괴산군 문광면 괴산로 신기1길 38

3:00PM - 괴산시장

바쁜 하루를 마무리 하고 학교에 돌아가는 길, 이대로 가기엔 너무나 아쉬워요. 그래서 들른 곳은 바로 전통시장에 위치한 옛날치킨입니다. 아직도 전통시장의 옛날치킨을 먹어보지 못했나요?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까지 듬뿍 사장님 최고!

※ 이용TIP
괴산장날은 첫째자리가 끝날짜가 3일과 8일이 장날인 5일장입니다. 전통시장에 들르기 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친구들과 데이트를 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네요. 오늘 저의 일과처럼 주말에는 학교 밖에서 이색적인 데이트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즐겁네요. 주말에 재미있게 놀고 내일 수업을 위해 이만 이걸로 송미의 하루 일과를 마칠게요 ~! 안녕 ~!



5스타(★★★★★)의 의미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한번 먹어봐야하는 메뉴,

4스타(★★★★)는 여러분의 미각을 충족시켜주는 메뉴를 의미하며

3스타(★★★)는 가끔 새로운 맛에 도전해보고 싶은 날에 먹는 메뉴를 의미합니다.

"별 5개를 달게 되는 카페테리아의 메뉴는 최고의 명성을 갖게 됩니다."

중원대학생들이 자주 찾는 식당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가까운 곳에 있는 법이죠! 바로~ 카페테리아입니다. 맛도 좋고 값도 저렴하여 학생이 이용하기 쉬워서 학식이외에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애용하는 카페테리아! 많은 음식 중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3가지 음식을 선정해보았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1등 '볶음짜장' 2등 '딸기피자&크림스파게티' 3등 '돈가스 오므라이스' 가 선정 되었습니다. 메뉴 선정에 참고하시면 어떨까요? ^^

안송미 기자 thdalland@naver.com



1등 볶음짜장 ★★★★★ 가격 : 4,000원

김성태 학우의 평

"당연히 볶음짜장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는 볶음짜장입니다. 볶음짜장은 매운짜장과 짜장면의 중간정도 매운맛이라서 매운 것을 잘 못드시는 분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4000원에 고퀄리티 음식을 먹는 기분이라 만족하고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중원 카페테리아 최고의 메뉴이며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드시지 못한 학생들도 한번 먹어보았으면 좋겠네요"

홍연지 학우의 평

"중원대 카페테리아하면 볶음짜장면이죠~♡♡
진짜 가성비 갑! 해물도있고 적당히 매콤하면서 먹는동안 즐거워요~~ 면다먹고 남은 양념에는 밥한공기 추가해서 비벼먹으면 진짜 행복입니다~~~공부에 지친 머리와 마음을 한번에 힐링해 주는 볶음 짜장면 짱입니다!!"



2등 딸기피자와 크림스파게티 ★★★★

딸기피자 : 13,000원/ 크림파스타: 5,500원

김소희 학우의 평

"계절메뉴로 나왔었던 딸기크림치즈피자가 정말 맛있어요! 그 피자랑 치즈크림 스파게티를 같이 시켰었는데 조합이 최고에요~~!! 치즈가 잔뜩 들어간 피자만 먹다가 신선한 과일과 풀떼기들이 들어가서 새로웠어요! 피자에 들어가는 치즈가 그냥 일반 치즈가 아니라 고급스러운 치즈를 사용하시는지 되게 부드럽고 입에서 녹아요. ㅎㅎ 비주얼도 너무 예뻐요 빵도 적당하게 두꺼웠고 토핑이 많이 올라가서 먹을 때는 살짝 불편했지만 한 입 먹고 나면 계속 손이 가는 피자에요!!! 계절마다 맛있는 신 메뉴들 많이 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어서 별 5개를 드리고 싶지만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서 별 4개를 드릴게요!"



3등 돈가스 카레덮밥 ★★★ 가격 : 5,000원

김혜연 학우의 평

"돈가스 카레덮밥이 제일 짱입니다 매일 나오는 메뉴가 아니라서 아쉬워요 ㅠㅠ하루에 세끼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돈가스 카레덮밥 제일 맛있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이죠! 밥 메뉴 중에 가성비 최고입니다. 학생들을 위해 고정메뉴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최한솔 학우의 평

"밥을 챙겨먹기가 힘들어서 자주 사먹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격도 적당하고 맛도 있는 돈가스 카레덮밥를 자주 시켜먹고 있습니다. 돈가스와 카레덮밥의 조화가 괜찮은 것 같고 간도 딱 맞아요! 돈가스 위에 카레소스가 뿌려져서 예술입니다~!"

제11호 2016년 7월 20일 수요일

Style 패완얼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 누구나 들어 봤을 법한 말이죠? 제 11호 학보에 선정된 옷도 잘 입고! 얼굴도 잘생기고! 심지어 예쁘기까지 한 패완얼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송예지기자 lilysong@jwu.ac.kr



청남방 롤업한 데님진

항공정비학과 15학번 변선우

점심시간 유난히 시선이 끌리는 훈남 패션 발견! 청남방과 진청색의 데님 진. 센스있게 롤업한 데님진과 하얀 스니커즈, 마지막 포인트로 청색 크로스백을 들어주어 완벽한 청청 패션을 코디했습니다.



뉴발란스 하이탑 운동화

경찰행정학과 14학번 김상현

하얀색 뉴발란스 티와 일자 중청 바지로 대학교 캠퍼스룩을 소화해낸 패완얼! 뉴발란스 하이탑 운동화로 매치한 센스! 백팩으로 풋풋한 대학생의 멋이 돋보입니다!





검정 옥스퍼드슈즈

간호학과 16학번 조보경

갈색머리와 잘 어울리게 걸리쉬한 쉬폰 원피스에 옥스퍼드 슈즈를 매치했네요. 마무리는 분홍색 시계. 아무리 패완 얼이라도 패션의 완성을 액서서리로 마무리 짓는 센스!



보트넥 블라우스

항공서비스학과 16학번 최지예

블랙은 패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색 이라죠? 올 블랙으로 매치 한 뒤에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보트넥 블라우스로 포인트를 주었네요.



로즈쿼츠 프릴 블라우스

사회복지학과 12학번 한수연

올해 트렌드 컬러인 로즈쿼츠색이 들어간 프릴 블라우스로 화사한 여대생 룩을 장식해줬어요. 늘씬한 다리에 어울리는 청 반바지와 공부하는 블루토익 책까지 매치해준 센스! 버켄스탁 슬리퍼로 더운 여름을 핫 하면서도 cool하게 보내는 당신을 청순 여대생을 임명합니다!



알찬 방학을 위한 허니 Tip

3개월 동안 방학인데 일주일 놀다가, 일주일 쉬고, 다시 계획은 해보지만 일주일이 훌쩍 지나가죠! 방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인생에 단 한번 뿐인 N학년 여름방학,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보낼 수 있는 달콤한 허니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학 때 잊지 말고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송예지기자 lilysong@jwu.ac.kr

1 자격증 — 국가 공인 시험은 학교 고시원에서



출처: 중원대 고시원 http://gosi.jwu.ac.kr

국가 공인 시험을 계속 미루게 된다면 취업도 미루게 돼요 원하는 직업에 한 번에 들어가고 싶다면 나의 실력을 키워야겠죠? 우리 학교에 고시원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학교 내에 있는 고시원은 공무원시험은 물론 국가공인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빵빵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①공무원 및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공무원반 (5/7/9급, 경찰 등 공무원직)
②관세, 회계, 법무 등 각종 자격증을 준비하는 자격증반

혜택 ①학기 중에는 90% 동영상 강의 및 강사 초빙 ②방학 중 학교와 연계 되어있는 학원의 교육비 100% 지원

신청방법 고시원 사무실은 s-501호로 고시원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문의 : ☎043)830-8163]

2 어학 — 온라인 무료 어학강좌는 학술정보원에서!



출처: 중원대학교 도서관 http://library.jwu.ac.kr/)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어학강좌를 아시나요? TOEIC, TOFEL, TEPS 어학강좌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학원비나 시간이 부족한 학우들에게 유용한 팁이 라 생각됩니다!

이용방법 중원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도서관'을 클릭 → 학번과 비밀번호로 로그인 → 사이트내에서 e-러닝을 클릭 → 상단의 테스트 센터를 클릭 → 테스트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어학시험의 레벨의 강의를 시청

허니팁 E-러닝으로 직무영어 뿐만 아니라 취업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3 인턴 — 현장실습을 통한 스펙 쌓기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saramin www.saramin.co.kr

인턴 및 현장실습은 단기간에 업무에 대한 실무경험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단, 고려할 점은 집과의 거리 그리고 본인의 진로에 적합한 기업에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방법 ① 지도교수 추천 ② 취업사이트(고용노동부, 사람인)

허니팁 지원서를 작성할 때는 자신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를 포부와 함께 작성해 주면 좋습니다.

4 지하철 여행 — 기자가 추천하는 1박 2일 코스



출처: 다이나믹 부산 http://tour.busan.go.kr

부산 지하철

부산종합버스 터미널에서 (1호선노포역) → 자갈치 시장에서 회 먹기 (1호선 자갈치역) → 감천문화마을에서 사진찍기 (1호선토성역 6번출구) → 해운대 부산 명물 밀면 먹기(2호선해운대역) → 더베이101에서 모히또 한잔 → 광안리 수변공원(2호선 광안리역) → 서면에서 젊음을 즐기기 → 남포동 지하쇼핑센터 구경 (1호선 남포역)

재미있는 점 하나 알려줄게요. 부산에 가면 노래방을 꼭 가세요. 노래방기기에서 부산 사투리를 쓰는 멘트가 나온답니다.

경춘선

서울 지하철의 경춘선을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춘천, 청평, 가평으로 가는 지하철이기에 교통비도 적게 들고, 청평과 가평에는 수영장 팬션과 수상레저등이 있어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답니다. 춘천에는 말 안 해도 아시죠? 유명한 닭갈비집들이 있는데, 진정한 춘천닭갈비는 철판닭갈비가 아니라 숯불에 구워먹는 닭갈비라고 해요. 백종원 아저씨의 3대 천왕에 나오는 '원조 숯불 닭갈비' 집을 추천합니다. 경춘선으로 맛있는 닭갈비도 먹고 수상레저도 즐기러 떠나요!

5 알바 — 돈과 재미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이색 아르바이트 하기!

마지막까지 우아하게, 어떤 일에도 침착하게, 알바를 하고 싶다면 그에 대한 정보는 필수! 나에게 적합한 아르바이트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아르바이트 전격 해부!

6 관공서 알바 — 꿀 보직알바를 꿈꾸는 분들에게 추천!

"관공서 알바"는 사무직알바의 끝판 왕 이라고 불리죠. 쉬운 업무와 좋은 근무조건과 쾌적한 근무환경, 1년에 딱 두 번 있다는 관공서 알바는 대학생들에겐 신의 알바랍니다. 더운 여름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져 있는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 취업 경험은 물론 이력서에 남겨지는 스펙알바로 좋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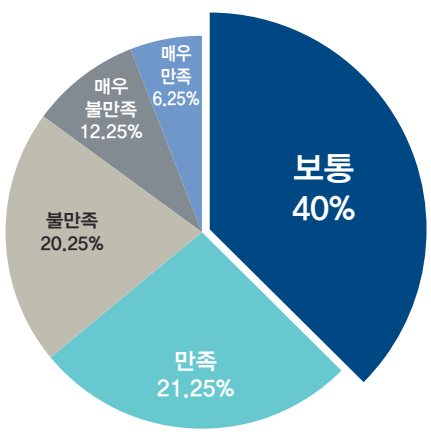
개교 7주년

학우들의 소리를 듣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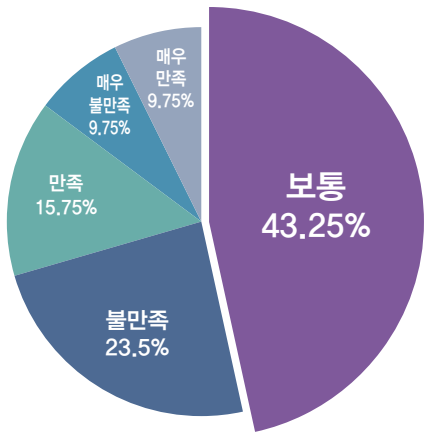
올해 개교 7주년을 맞아 5월 24일(화)부터 25일(수)까지 시설, 교육, 학식 등에 관한 400여 명의 학우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번 설문의 목적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어떠한 이미지로 비춰지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조사하였다. 조사항목은 학생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육시설, 도서관, 학식/카페테리아, 휴게실, 매점, 기숙사로 나누어서 알아보았다.

1 학교의 학생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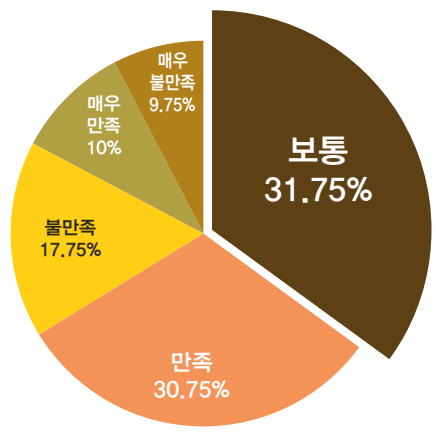
교육시설 만족도 조사에서 학교의 학생지원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보통' 응답이 160표(40%)이고, 불만족의 응답비율은 81표(20.25%)로 나왔으나 대체로 학교의 학생지원에 대해서는 많은 학우 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교육 시설 건의사항으로는 도서관 건물을 따로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2 교양과목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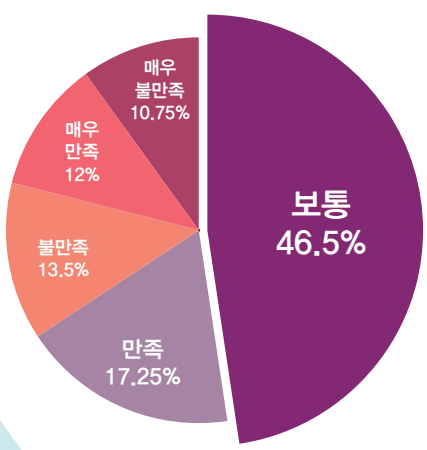
학교 교양과목에 대해서는 '보통'의 대답이 173표(43.25%) 불만족이 94표(23.5%)로 각각 1위 2위를 차지하였다.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선택한 학우들은 다양한 과목이 개설 되었으면 하는 의견과 IT관련 과목, 외국어 과목, 취업 관련 강의에 개설을 바라는 의견을 비쳤으며, 많은 학생들이 학점 맞추기가 어려워서 교양과목에 학점을 1·2학점 과목도 생겼으면 좋겠다고 답해 주었다.

3 도서관 개방 시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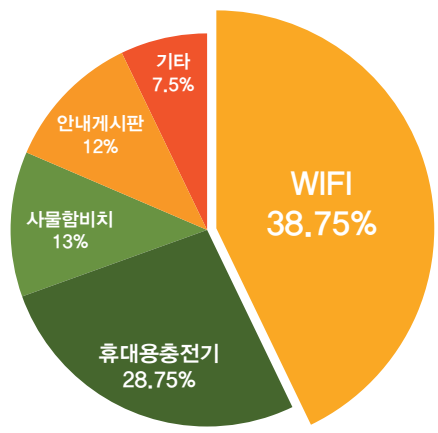
도서관 만족도 조사에서 개방시간(평일 8시 ~ 21시, 주말 폐쇄)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 31.75%, 만족이 30.75%로 도서관 개방시간에는 대부분 만족하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4 도서대출기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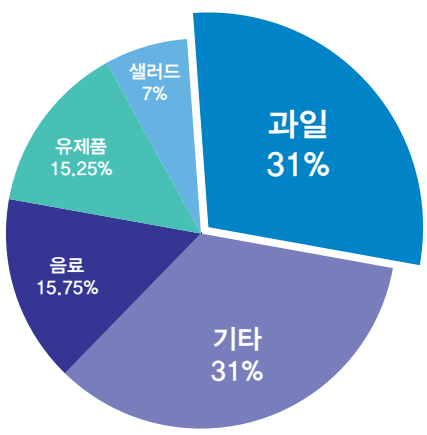
교내 도서관 대출 기간에 대해서는 '보통'의 대답이 186표(46.5%)로 가장 많았지만,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 응답률이 97표(24.25%)로 도서 대출 기한이 짧다고 느끼는 학우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교내 도서관 대출 기간은 10일이며, 한번 빌릴 때 학생은 5권까지 빌릴 수 있다. 도서관 건의 사항으로는 주말 개방과 대출 기간 연장을 바라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 휴게실 시설 중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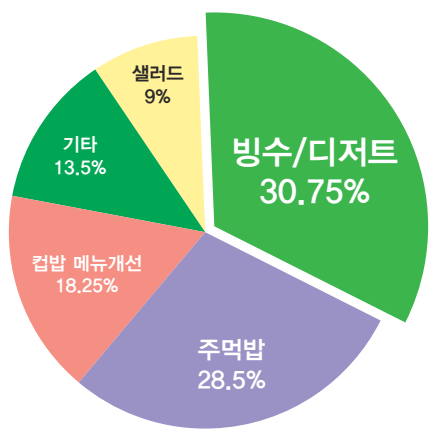
휴게실에서 최우선으로 보완해야 할 점으로는 'WIFI'설치 155표(38.75%)가 꼽혔다. 그 뒤로 휴대폰 충전기 설치 115표(28.75%), 사물함 비치 52표(13%)가 많은 요구 받았다, 아무래도 통학 학생이 늘어나면서 휴게실 WIFI사용과 휴대폰 충전 할 곳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기존에 본관 5·6층에 있는 사물함이 부족하여 사물함 추가개설을 바라는 학우들 또한 적지 않았다.

6 학식 음식 중 보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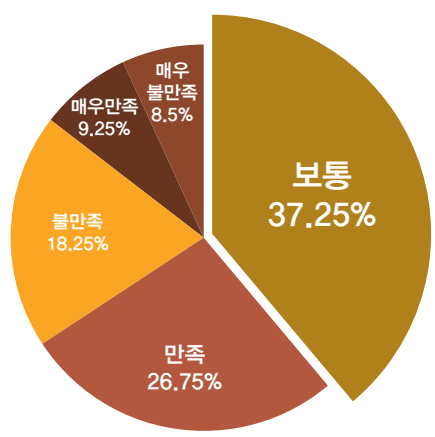
학식에 관한 설문 중에서 좀 더 보충되어야 하는 음식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과일'이 124표(31%)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기타 의견이 124표(31%)로 기타에서 많은 학우들이 고기, 패스트푸드, 반찬의 질과 영양 맛이 보충 되어야 된다고 말해주었고, 또한 이와 같이 영양과 맛에 신경 써 달라는 학우들의 의견도 있었다.

7 카페테리아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음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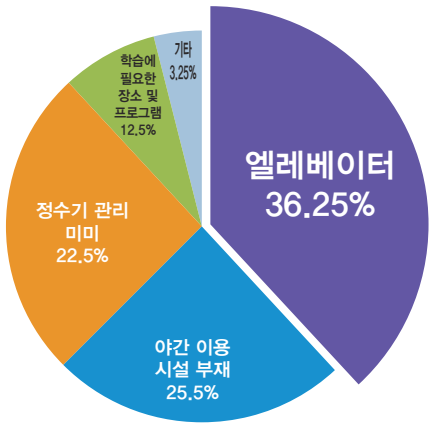
학우들이 카페테리아에서 추가되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빙수/디저트'가 123표(30.75%)로 1위를 차지하였고, 주먹밥 114표(28.5%) 컵밥 메뉴 개선 73표(18.25%)가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저렴한 음식(볶음밥, 짬뽕밥) 간편식(비빔면, 죽) 식사류(불고기, 족발, 해장국) 등이 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여주었다.

8 매점에서 파는 상품의 종류는 어떻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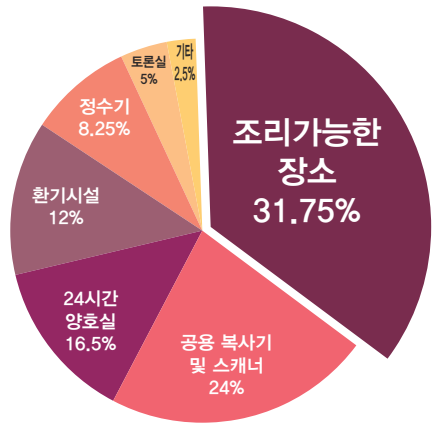
매점에 관한 질문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73.25%로 대다수가 매점에서 파는 상품의 수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부정적인 평가는 26.75%로 나타났다. 매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불만족 의견을 낸 학우들은 매점에서 팔았으면 하는 것으로 비상약, 삼각김밥과 과일·아이스크림 종류 다양화 등 보통 편의점에서 파는 것처럼 간편한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상품의 다양화를 원하고 있었다.

9 기숙사 편의시설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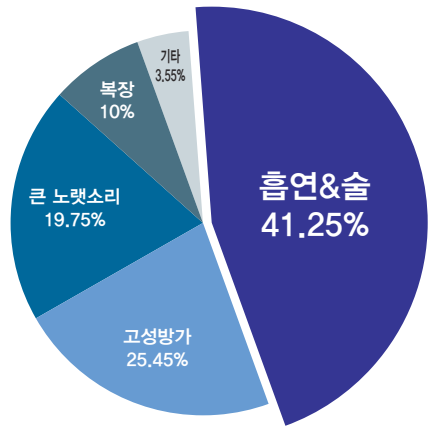
기숙사 관련 문항에서는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점으로 엘리베이터 부족 155표(36.25%)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야간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부재 102표(25.5%)가 뒤를 이었다.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우 분들이 가장 많이 바라는 것은 흡연실을 따로 만들어 흡연자가 정해진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10 기숙사에 추가적으로 설치 했으면 하는것은 무엇입니까?



기숙사 내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원하는 질문에서는 조리 가능한 시설 127표(31.75%), 공용 복사기 및 스캐너 98표(24.5%), 24시간 양호실 68표(16.5%), 추가적인 환기 시설 50표(12%), 정수기 35표(8.25%), 토론실 22표(5.5%), 기타 10표(2.5%)로 각각 집계되었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원룸에 정수기 설치와 공용 냉장고, TV시설, 여성용품 자판기, 전자레인지 설치라는 의견이 나왔다.

11 현재 기숙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에티켓



현재 기숙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에티켓으로는 흡연과 술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 소음에 대한 의견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총 평

설문 조사를 토대로 학우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대체적으로 현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학교생활 만족도는 긍정적이었다. 학식과 카페테리아 매점 부문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들이 있지만, 학교 방침의 변경으로 충분히 개선 가능한 것이므로 이 점을 충족시켜 준다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 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오히려 이번 조사를 진행하면서 아쉬운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의 부재'이지 않았나 싶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흡연과 소음에 대한 여러 의견을 표출하였는데 이런 문제는 당장 해결 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이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차차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흡연실이 개설 될 때까지, 당분간 모든 흡연자들이 비 흡연자들을 위해 조금은 귀찮더라도 기숙사 밖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다거나,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들을 위해 조금은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술은 친구들과 함께 밖에서 마시고 들어오는 이런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은 당장은 낮은 만족도를 꾸준하게 높이는 작은 씨앗이 될 것이다. 최병근 기자 root@jwu.ac.kr



제11호 2016년 7월 25일 월요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알려줍니다

1588-중원중원

카톡 한방이면 끝나! 학과에 대해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인문사회과학대학



대표
박형민
(경찰행정학과)
카톡 아이디
phm8588



부대표
신상효
(경찰행정학과)
카톡 아이디
shinsanghyo

포돌이와 함께하는 삶,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사, 사회복지사, 관세사, 미술치료사 등 인문사회과학 대학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알려드립니다.

이공대학



대표
장재용
(자원순환환경공학과)
카톡아이디
JaeYongJ



부대표
유호준
(의약화학과)
카톡아이디
yhj5947@naver.com

한국수력원자력 혹은 한국석유공사, 제약회사, 첨단의료분야 연구원, 푸드 스타일리스트, 건설관리공단, 보건복지부, 식약청, 제2의 빌게이츠,국토교통부에서 내꿈을 펼치고 싶나요? 그런 사람은 Put your hands up!

의료보건대학



대표
이장훈
(보건행정학과)
카톡아이디
wkdgns0516



부대표
김현진
(임상병리학과)
카톡아이디
guswjd5536

병원서비스 코디네이터, 퍼스널 트레이너, 메이크업아티스트, 또하나의 나이팅게일, 작업치료사로 사람을 관리해주는 이들이 되고 싶은 분들은 연락주세요.

항공대학



대표
최우석
(항공정비학과)
카톡아이디
zzwooseok



부대표
곽인희
(항공정비학과)
카톡아이디
ihsh831

방위산업체의 엔지니어, 스튜어디스/스튜어드로 최고의 서비스로 목적지까지 편하게, 뛰어난 조종실력을 겸비한 항공비행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연결해 드립니다!

체육학부



대표
유영태
(레저스포츠학과)
카톡아이디
zzxcx112



부대표
이현진
(레저스포츠학과)
카톡아이디
317b95

프로골퍼가 되고싶나요? 태권도 지도자는 어때요? 다양한 스포츠 선수들을 육성해 내는 체육지도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연락주시길 바래요.

예술학부



대표
김효래
(산업디자인과)
카톡아이디
gyorae

광고를 디자인하거나, 이말년 형아의 대를 이어받고 싶은 분, 혹은 연극배우, 영화감독이 되고 싶은 분들은 예술학부의 대표인 김효래 대표님께 얼른 연락주세요!



2016 중원대 상반기

우리모두 하나되어!~

체육대전



1등샷 축배



꽃밭에는 꽃들이~



내가 제일 잘나가



1초후에 널 쓸거야



묵 찌 빠



손님 대퇴근이 장난아니네요



이거 다 마신거 안비밀



마! 우리가 우승했다아이가



에이요~! 쑈미더 머니 !



널향해 달려왔어



날아라~! 용박



이겼다~!!



커피프린스 11호점



포즈만이라도 멋지게



학생 차한잔할까



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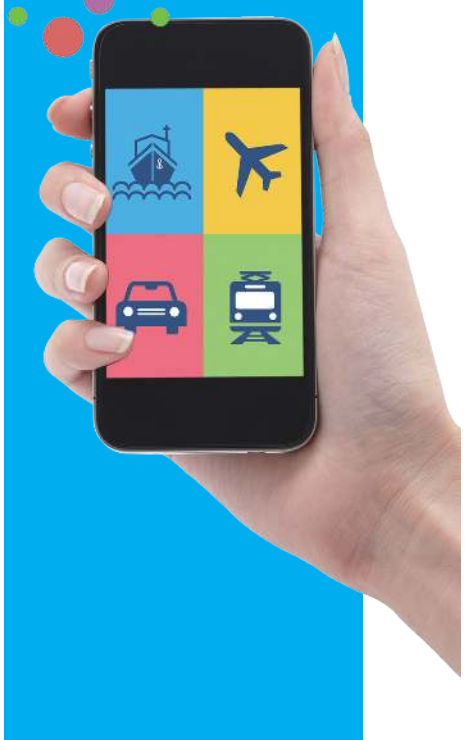


홍일점



대학생을 위한 필수 APP





에버노트

문서 스캔과 전송을 한번에

여러 유인물과 기타 프린터물로 내 손은 주머니에 들어갈 시간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줄 앱이 출시되었다. 바로 에버노트 스캐너블 이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스캐너블 앱을 켜고 스마트폰 카메라에 문서를 대기만 하면 된다. 사진 찍은 문서는 PDF 형식으로 저장한다. e메일,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다.

Toss

저 친구는 항상 현금이 없단다.
이젠 안 속는다!

기분 좋게 친구들과 밥을 먹었다. 계산이 할 때가 되면 한 친구는 늘 말한다. "아 나 현금이 없어!" 하지만 이젠 'Toss' 앱으로 간단히 해결! 토스는 이체할 금액과 받을 사람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계좌이체를 완료할 수 있다. 모든 거래는 공인인증서 수준의 인증서로 서명되고 분실 등의 위험에 따라 계좌정지 기능, 피싱거래도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 장학금 신청 및 조회

학자금 대출, 장학금 소개 등을 손쉽게 볼 수 있다. 공지사항은 수시로 변경되어 자주 확인하면 장학금 신청기간이나 재단 소식에 대해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 시 즉시 사용가능하다. 장학금 정보와 서류제출도 빠르게 업로드가 가능하다. 빠른 정보 습득을 통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이캠퍼

유용한 정보가 한눈에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취업, 서포터즈, 공모전, 봉사활동 정보를 모바일에 최적화된 가장 편리한 방식뿐만 아니라 대학생에게 필요한 팁이 포함되어 있다. 전국 대학생 동아리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동아리 개설, 다양한 캠퍼스의 친구들까지 만들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온라인 판매 제품을 대학생 특가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다. 화장품부터 잡화까지 여러 가지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에브리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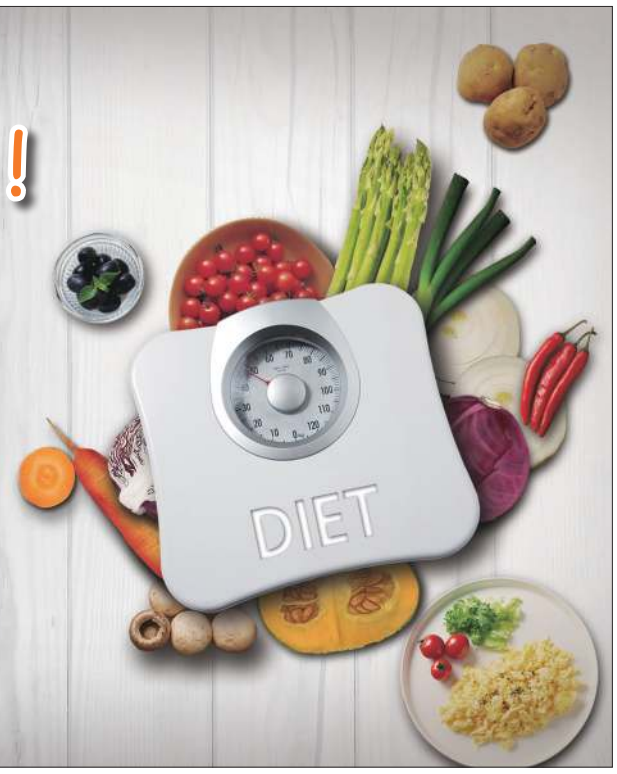
시간표와 커뮤니티를 한번에

에브리타임은 시간표, 강의 평가, 커뮤니티 모임 등을 제공하는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으로 전공별, 학기별 시간표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밖에도 학점 계산, 강의평가, 학생들의 커뮤니티를 제공한다. 특히 친구 맺은 사용자의 시간표도 볼 수 있다. 한번 만든 시간표는 위젯을 이용해 쉽게 확인 가능하다. 더 나아가 대학별 모임을 한눈에 알 수 있고 다른 학교 학생들과도 손쉽게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에브리타임만의 장점으로 꼽힌다.

김병국 기자 kbk0777@jwu.ac.kr

언론 장학 기자와 함께하는

중원인 다이어트 프로그램!



VACATION 특집 : 다이어트!

바쁜 일상에 치여서 봄은 가고 노출의 계절인 여름이 오고 있어요! 이번 여름 방학을 맞아 저희 홍보실에서 방학 동안 작은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바로 다이어트 이벤트인데요. 살빼기 전 사진을 찍고, 다이어트 후의 사진을 찍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모두 건강한 다이어트로 예쁜 몸매, 건강한 몸매를 얻길 바랄게요~!

기 간 이 신문이 배부될 때부터 개강 날로부터 5일 후까지

어떻게 팔을 위로 뻗고, 앞모습과 옆모습 찍기

장소 (전/후 사진 찍을 장소) 2016년 6월 이후부터라는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장소라면 어디든 가능!!

상 품 블루투스 스피커, 문화상품권

※주의사항 : 포토샵은 절대 하지 말기!!

이지은 기자 wldms351@jwu.ac.kr

중원대학교 취업생이 전하는
생생한 취업이야기

취업 우리가 알려주마

학업 증진과 취업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11학번 학생들이 사회인으로써 첫걸음을 뗐습니다. 취업 후 바쁜 시간을 내어 고규성, 김동환 선배가 중원대학교 후배들을 위해 취업을 위한 조언과 취업 후의 자신이 느낀 점을 솔직하게 밝혀주었습니다.

고 규 성
컴퓨터시스템공학과 11학번

1.회사에서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저희 회사는 웹사이트를 리뉴얼, 구축하는 회사로써 현재 기획팀의 일원으로 홈페이지의 전반적인 컨셉, 고객사와의 요구사항 수렴 및 조율 등 홈페이지 구축의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현재 업무에 대한 만족도와 비전을 말씀해주세요.

첫 직장에 첫 사회생활인데 무조건 "재미있다"고는 못 합니다. 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잘하는 것, 배워온 것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뿌듯합니다. 제가하고 있는 업무는 홈페이지 구축, 리뉴얼(개편)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소규모 회사 심지어 개인사업자도 홈페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홈페이지 구축과정 중 가장 중요한 일은 기본틀을 잡는 일이기에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3.취업에 도움이 된 부분

제가 느끼기에는 학우들과 함께 준비한 공모전, 경진대회와 대외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어떤 경험을 많이 하고 많이 본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경진대회, 공모전, 대외활동 등 여러 경험을 함으로써 인사권자에게 활발한 자신의 성격을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취업 후 자신이 느낀 부족한 점

아직까지 제일 힘든 것은 서류작성입니다. 간단히 대학교 리포트가 아니라 규격, 명확성, 단어 선택 등, 내가 읽는 것이 아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서류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5.처음 취업이 됐을 때의 소감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제 마음속에 있던 '안 되면 되게하라'는 명언을 곱씹으며 실제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을 확인해가며 끝까지 준비하였습니다.

6.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한마디 해주세요.

남들이 잘 경험하지 않는 어떠한 경험을 쌓고 활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학교 학생들에게는 학교 위치상 지역노인 비중이 높고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그러한 점을 단점이라 생각지 말고 활용하여 남들과 다른 경험과 안목을 쌓는다면 차별화된 스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점은 사회에서 성실성을 평가하는 척도이기도 하니 관리하시길 바라며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김 동 환
컴퓨터시스템공학과 11학번

1.회사에서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skt에서 제공하는 t114앱 운영팀에 속해 있으며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고객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갱신입니다.

2.현재 업무에 대한 만족도와 비전을 말씀해주세요.

현재 업무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다. 분명 부족한 것은 많으나 주위 선배들의 경험을 살린 조언에 항상 성장해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에 속한 고객 수는 약 1천만입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고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고 있으며 계속 고객이 늘어나는 추세라 비전이 밝다고 예상됩니다.



▶김동환, 고규성 학생이 취업소식을 알리고 멋지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3.취업에 도움이 된 부분

교 내·외 활동을 많이 하면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스터디 및 동아리 등 학업 및 자신의 취미, 특기를 살린 활동은 그 분야에 대해 열정이 대단한 것으로 점수를 받습니다. 특히, 저는 한 학기정도 동기들과 함께 전공 책을 집필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인해 전공지식을 활용할 수 있었으며, 동기들과 합심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협동심 또한 기를 수 있었습니다.

4.취업 후 자신이 느낀 부족한 점

회사와 학교는 매우 다른 사실을 간과했다가 곤욕을 치렀던 일이 있습니다. 만약 각 학과에서 진행하는 실습을 통해 사회생활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보았다면 이러한 부분은 쉽게 해결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차, 배워가야겠죠?(웃음)

5.처음 취업이 됐을 때의 소감

합격하고 싶었던 기업이라 기대가 컸습니다. 막상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떨떨해 몇 분 동안은 아무 생각이 안 들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걱정 반 첫 직장이 어떨지 기대반이였습니다.

6.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한마디 해주세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력에서 한 줄이라도 더 쓸 수 있는게 정말 좋은 겁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리포트 공모전, 프레젠테이션 공모전, IT경진대회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참여하시고 취업만을 위한 대학생활보다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을 통해 많은 경험과 활동을 하시면서 재미있는 경험과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김병국 기자 kbk0777@jwu.ac.kr





JWU 한마음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정성이 중원대학교의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 여러분이 주신 기금은 학교 전략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부자의 소중한 정성을 잊지않고 보답하겠습니다.

기부참여 방법

1. 현금 즉납

2. 무통장 입금 | 아래의 발전기금 계좌로 직접 입금해주세요.
농협 301–0018–0977–31(중원대학교 발전기금), 국민 615801–04–207855(중원대학교 장학기금),
국민 615801–04–211393(중원대학교 발전기금)

3. 자동이체 신청 | 매달 약정하신 금액이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신청전화 043–830–8056 (*문의처로 연락하여 반드시 입금 확인)

2016년 중원대학교 발전기금 기부내역

기부유형	번호	입금일자	성 명	기부형태	기부금액	기부내용	입금계좌
발전기금	1	2016.03.09	(재)러시앤캐시배정장학회	현금	3,699,000	장학기부금	국민 615801–04–207855
	2	2016.03.15	중원대원우회(안진한)	현금	300,000	발전기금	농협 301–0018–0977–31
	3	2016.03.18	(재)형애장학회	현금	3,005,000	장학기부금	국민 615801–04–207855
	4	2016.03.30	유태식	현금	100,000	발전기금	농협 301–0018–0977–31
	5	2016.03.30	김향수	현금	10,000	간호학과 발전기금	국민 615801–04–211393
	6	2016.05.02	유태식	현금	100,000	발전기금	농협 301–0018–0977–31
	7	2016.05.02	김향수	현금	10,000	간호학과 발전기금	국민 615801–04–211393
	8	2016.05.09	한국장학재단	현금	3,900,000	장학 기부금	국민 615801–04–207855
	9	2016.05.11	이성규	현금	500,000	발전기금	국민 615801–04–211393
	10	2016.05.17	신한은행충북장학회	현금	500,000	장학기부금	국민 615801–04–192791
	11	2016.05.25	조성훈	현금	300,000	발전기금	국민 615801–04–211393
	12	2016.05.30	유태식	현금	100,000	발전기금	농협 301–0018–0977–31
	13	2016.05.30	김향수	현금	10,000	간호학과 발전기금	국민 615801–04–211393
	14	2016.06.21	(재)케이티그룹희망나눔재단	현금	1,400,000	장학기금	국민 615801–04–207855
	15	2016.06.30	김향수	현금	10,000	간호학과 발전기금	국민 615801–04–211393
	16	2016.06.30	유태식	현금	100,000	발전기금	농협 301–0018–0977–31

※문의처 : 전화 (043)830–8056 중원대학교 발전기금 관리팀 / 팩스 (043)830–8115

